

5년간 광주·전남 경찰공무원 98명 기소

전남 70명·광주 28명...음주운전이 '최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60명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각종 비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 경찰공무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소 또는 약식 기소된 전남 지역 경찰공무원은 행정관 2명을 비롯해 총 70명이었다. 혐의별로는 사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음주운전 방조·음주측정 거부 14건 ▲교통사고 관련 범죄(치상 포함) 8건 ▲성범죄(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5건 ▲뇌물·금품수수 등 4건 순이었다. 이 밖에도 범인 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같은 기간 기소된 광주 지역 경찰공

무원은 2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혐의 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등 교통 관련 범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적발도 9건이나 됐다. 이어 공무집행방해가 2건이었으며, 금품 수수·직권남용 체포감금·특수절도·상해·폭행·허위 공문서 작성·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 각 1건이었다. 광주·전남경찰청을 통틀어 계급별 기소 대상자는 조직 내 '허리 역할'인 경위가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선경찰서 팀장급인 경감도 20명이나 됐다. 경사 6명, 경장 6명, 순경 2명, 행정관 2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일선경찰서 수사부서 지휘관인 경정 2명도 각기 법인 도피, 음주운전 등 비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부 징계 처분은 정직(1~3개월)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파면 또는 해임이 20건, 감봉·견책 각 12건, 강등 8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광주에선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주차 차량을 훔쳐 물거나 차량털이 범행을 하는 등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엄정 단속 기조 속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 역시 잇따르고 있다.
 오유나기자



여수경찰,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개최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5월 30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여수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가졌다.

여수=김현근기자



무안경찰, 마약 범죄 예방'NO EXIT'캠페인 동참

무안경찰서(서장 김정환)는 지난 5월 26일 마약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나주경찰, 학교폭력·청소년범죄(마약·도박) 예방 교육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경찰서-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인력풀로 구성된 강사단 13명이 관내 21개 학교 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마약·도박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순천경찰,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순천 조례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등 57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소방 의용소방대, 마을 안전지킴이 활동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거동불편 어르신 및 장애인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마을전담제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완도소방, 해지는 섬(검은 나루) 흑일도 '비상구급함' 설치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불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취약 주거시설인 여인숙, 주거용 컨테이너 등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컨설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공동주택 개 짚는 소리 위층 피해...“개 주인이 손해배상”

지체 장애 주민, 아래층 개 짚는 소리로 수면 장애→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장 “공동주택 소음기준치 미달해도 생활 소음 반복은 불법 행위” “증거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액 300만 원 중 100만 원만 배상”

공동주택 아파트의 개 짚는 소리로 위층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A씨가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지체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 모 아파트 10층으로 이사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아래층에 사는 B씨의 반려견 2마리(이 중 1마리는 유기견)가 짚는 소리에 시달렸다. A씨는 몸이 불편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매일 5시간 이상 지속되는 개 짚는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우울증도 겪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적응 장애로 치료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여러 차례 B씨에게 개 짚는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개 훈련사와 상담하고, 성대 수술을 고려하겠다고 했다’가 추후 방문 부스를 설치했다며 소문을 거부했다. A씨는 경찰과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개선은 답변을 받았다. 관리사무소에서 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사까지 시도했으나 집이 팔리지 않았고, 개 짚는 소리로 수면

장애가 지속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A씨가 B씨의 개가 짚는 소리에 시시때때로 상당한 피해를 봤다. 생활 방해 소음이 지속했는데 B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장은 “개 짚는 소리가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A씨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슬비기자

‘마약음료’ 재판 시작...“협박 받아 가담, 학생 먹게 될 줄 몰랐다”

'마약음료' 제조책 등 3명 구속기소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일명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혐의를 받는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 외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마약음료를 제작·운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미성년자들에게 하여금 영리 목적으로 마시게 할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씨에게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

약투약' 혐의가 적용돼 있는데,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날 김씨 측은 보이소피싱 총책의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39)씨는 일부 변종계기 사용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고의가 없고 보이소피싱으로 인해 얻은 수익 역시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다만 박모(36)씨는 필로폰 운반 등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

무리하고 다음달 28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소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변종계기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김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기소됐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지난 4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가장,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음료를 나눠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음료 1병엔 통상적인 필로폰 1

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이다.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실제로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는 피해자들이 불응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소피싱 조직원들이 사건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과 같은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모(41)씨는 지난 22일 별건 기소됐다. 이 사건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총책 이모씨는 현재 검찰에서 추적 중이다.
 뉴스스



마을 수확하기 딱 좋은 날

5월 31일 대구 달성군 현릉읍 대리의 한 마을밭에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선 달성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마을 수확을 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국내 엠폭스 환자 3명 더 늘어...누적 95명

국내 엠폭스 환자가 3명이 더 늘어 누적 95명이 됐다. 5월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확진자 3명이 추가됐다. 엠폭스 신규 환자는 지난 27일 이후 4일 만에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엠폭스 환자는 총 48명이다. 당국은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엠폭스 고위험군 1차 접종자 중 접종 후 4주가 경과하는 6월5일부터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누적 접종자 수는 3022명이다. 당국은 별도로 엠폭스 예약 시스템을 개발해 접종을 원하는 고위험군은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 예방접종 관련 궁금한 사항은 1339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이슬기자